

## 지식기반산업 도시 런던의 고용구조가 변하고 있다

- 런던은 국제금융업무 7개 중에 6개 부문을 선도하고 있는 세계적인 금융중심지이며, 뉴욕과 더불어 지식기반서비스업이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도시임. 영국, 뉴욕을 비롯한 세계 첨단도시들은 과거 20여 년 동안 지식기반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의 발전에 따라 산업구조변화와 고용구조변화를 경험하였음.
- 결과적으로 런던은 과거 30년 동안 제조업에서 7만 5천여 개의 일자리를 상실하였으며 회계, 법률, 컨설팅, 광고, 미디어,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이 이 자리를 대체하였음. 과거 영국 런던시가 경험한 고용구조 변화, 주로 산업별 고용변화를 분석하고 서울시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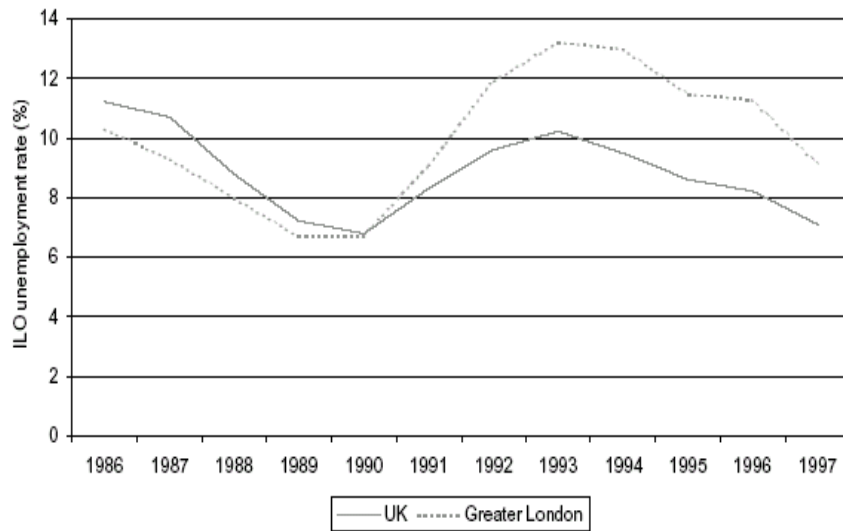
### 런던의 장기적인 노동시장 변화

- 1970년부터 1998년 사이 런던은 영국전체 평균 보다 심각한 고용사정의 악화를 경험하였음. 그러나 1990년 후반에 나타나고 있는 지식기반서비스업과 창의적인 산업(creative industry)발전으로 인한 런던시의 고용 증가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1987년부터 2000년까지 런던시 고용은 전산업 부문에서 영국전체 평균에 비해 부진하였음. 동기간 영국전체의 고용은 14%(257만 5천명) 증가한 반면 런던은 12%(38만 4천명) 증가함. 특히 런던의 제조업, 엔지니어링산업의 고용은 각각 75%(7만 5천명)와 59%(2만 8천명) 감소하였고 그 감소율은 전국 감소율 19%와 25%에 비해 매우 높음. 반면 런던의 법률, 회계와 같은 고급서비스업 고용은 33%(5만명) 증가하여 전국의 고용증가 4%(2만 6천명)에 비해 높음.

[표 1] 런던, 영국의 주요산업별 고용증감 (1987-2000) (단위: 천명)

| 구 분      | 고용변화 |       | 증감율  |      |
|----------|------|-------|------|------|
|          | 런던   | 영국    | 런던   | 영국   |
| 기타사업서비스  | 285  | 1,164 | 97%  | 119% |
| 정보·통신    | 68   | 309   | 57%  | 68%  |
| 숙박업      | 74   | 404   | 54%  | 55%  |
| 회계·법률    | 50   | 26    | 33%  | 4%   |
| 도매업      | 16   | 247   | 10%  | 29%  |
| 소매업      | 29   | 468   | 9%   | 24%  |
| 금융서비스    | 16   | 89    | 5%   | 10%  |
| 제조업      | -75  | -465  | -38% | -19% |
| 엔지니어링 산업 | -28  | -390  | -59% | -25% |
| 산업계      | 384  | 2,575 | 12%  | 1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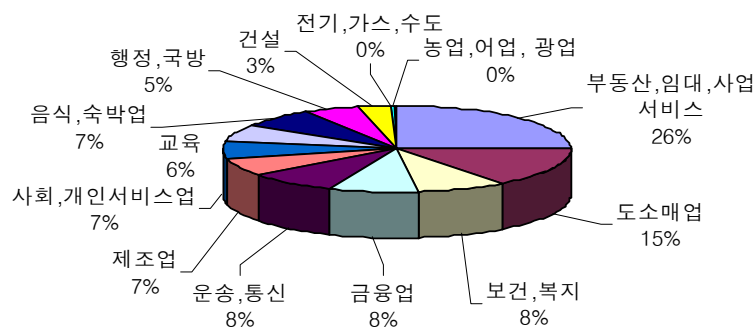
- 1986년부터 1997년까지 장기적인 실업률 추세를 보면 1980년대 런던의 실업률은 전국평균에 비해 낮으나 1990년을 기점으로 높아짐. 이 같은 런던시의 높은 실업률은 산업구조뿐만 아니라 주민의 교육과 소득수준과 관련하여 분석될 수 있음. 이 기간동안 중소득층이 도시를 빠져나가 교외에 거주함에 따라 런던시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으로 양분됨.
- 저소득층은 저학력 및 육아문제 때문에 고용의 기회를 갖지 못해 극심한 실업문제를 겪게 되고 이러한 저소득층의 도시집중으로 런던은 전국대비 높은 실업률을 보이게 됨.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1990년 후반 이후 지식기반서비스업과 창의적인 산업(creative industry)발전이 힘입어 런던시의 고용사정이 개선될 것으로 예측됨.



[그림 1] 런던, 영국의 실업률변동 (1986-1997)

### 2001년 런던시 고용구조

- 2001년 자영업 종사자 약 50만명을 제외한 런던시의 고용은 약 4백만명 임. 서비스산업은 전체 종사자의 약 90%를 차지하고, 제조업은 6.7%, 건설업은 3.3%를 차지하고 있음.



[그림 2] 2001년 런던의 산업별 고용비중

- 서비스산업을 세분하여 보면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가 전체 고용의 24.8%를 차지하고, 도·소매가 15%, 금융이 8.3%, 운송·창고·통신이 8.3%, 보건·복지가 8.2%, 음식·숙박업이 6.8%, 개인서비스가 6.8%, 교육이 6.2%, 행정·국방이 5.2%를 차지하고 있음. 고용이 큰 부문은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와 금융, 도소매, 공공부문임. 보건·복지, 교육, 행정·국방으로 구성된 공공부문은 총 고용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고용원임.
-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는 법률, 세무, 회계, 시장조사, 컨설팅, 광고, 홍보, 건축설계, 엔지니어링, 구인구직, 보안, 디자인 등 다양한 업종을 의미하고 이 부문은 런던 전체 고용의 1/4을 차지하는 가장 큰 고용부문임. 이 업종(異業種)으로 이루어진 클러스터로부터 창출되는 집적의 효과를 활용하기 위해 이들 업종은 런던에 위치하고 있음.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를 세 분류하면 컴퓨터 및 관련업종은 이 부문의 12.4%를 차지하는 중요한 업종이고 또한 부동산업도 9.5%를 차지하고 있음.
- 금융업을 세분하면 은행업이 금융업의 57.5%를 차지하고 증권업 등 관련업이 30.7%, 보험·연금업이 각각 11.8%를 차지하고 있음. 도·소매업을 세분하면 도매업이 도·소매업의 60.7%, 소매업이 30.7%를 각각 차지하고 있음.
- 운송·창고·통신을 세분하면 통신이 이 부문의 33.5%, 여행 및 운송관련업이 26.8%, 육상운송이 25.2%, 항공운송이 13.6%를 차지하고 있음. 제조업의 경우 출판·인쇄가 제조업의 34.8% 음식료가 11.4%를 각각 차지하고 있음.

[표 2] 런던시 산업별 고용비중(2001)

(단위: 명)

| ■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 |         |       | ■ 운수·창고·통신업 |         |       |
|----------------|---------|-------|-------------|---------|-------|
| 구 분            | 고용      | 비중    | 구 분         | 고용      | 비중    |
| 사업서비스          | 747,888 | 74.6% | 통신업         | 112,307 | 33.5% |
| 컴퓨터 및 관련업      | 124,302 | 12.4% | 여행 및 운송관련업  | 89,506  | 26.8% |
| 부동산업           | 95,174  | 9.5%  | 육상운송        | 84,352  | 25.2% |
| 장비기기대여 및 운영    | 21,075  | 2.1%  | 항공운송        | 45,426  | 13.6% |
| 연구개발업          | 14,405  | 1.4%  | 해상운송        | 2,908   | 0.9%  |
| ■ 금융업          |         |       | ■ 도·소매업     |         |       |
| 구 분            | 고용      | 비중    | 구 분         | 고용      | 비중    |
| 은행업            | 192,776 | 57.5% | 소매업         | 366,730 | 60.7% |
| 증권등 관련업        | 130,087 | 30.7% | 도매업         | 185,373 | 30.7% |
| 보험·연금업         | 39,757  | 11.8% | 기타          | 520,40  | 8.6%  |

### 1997년 2001년 사이의 최근 고용변화

- 앞서 언급한 것처럼 1990년 후반 즉 1997년부터 2001년 사이 런던시의 고용사정은 매우 호전되었고 고용은 동기간 13%(47만명) 증가하였음. 동기간 고용구조에 있어 현저한 변화는 1차 산업 및 제조업의 비중감소와 서비스산업, 특히 집적경제효과가 큰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의 비중 확대임.
- 동기간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의 고용은 28%(21만7천명) 증가하여 전 부문 중 가장 큰 고용증가를 시현하였음. 이중 컴퓨터와 관련업의 고용은 72%(5만2천명) 증가하고 부동산업의 고용도 역시 29%(2만1천명) 증가하였음. 금융업의 고용은 8%(2만 5,500명) 증가에 머물러 저조합.
- 여가산업의 고용증가는 동기간 25%(8만 9천명) 증가할 정도로 현저함. 음식·숙박업 고용은 27%(5만 8천명) 증가하고 여가·스포츠·문화산업 고용은 22%(3만 1천명) 각각 증가함. 이와 같이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과 여가산업은 급속한 고용증가를 기록하였음.

[표 3] 런던시 산업 고용변화(1997-2001) (단위 : 명)

| 구 분          | 1997      | 2001      | 증감   |
|--------------|-----------|-----------|------|
|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 | 785,852   | 1,002,843 | 28%  |
| 도·소매업        | 543,748   | 604,143   | 11%  |
| 보건·복지        | 311,137   | 329,661   | 6%   |
| 금융업          | 310,127   | 334,499   | 8%   |
| 운송·통신        | 304,621   | 335,619   | 10%  |
| 제조업          | 292,916   | 270,842   | -8%  |
| 사회 개인서비스업    | 229,621   | 273,739   | 19%  |
| 교육           | 223,536   | 248,114   | 11%  |
| 음식·숙박업       | 217,397   | 275,431   | 27%  |
| 행정·국방        | 215,441   | 210,530   | -2%  |
| 건설           | 116,161   | 133,217   | 15%  |
| 전기·가스·수도     | 8,216     | 9,734     | 18%  |
| 광업           | 4,606     | 3,209     | -30% |
| 농업           | 2,427     | 2,907     | 20%  |
| 어업           | 1,747     | 1,540     | -12% |
| 런던시          | 3,567,555 | 4,036,028 | 13%  |

- 운송·통신 고용은 10%(3만명) 증가하고 건설업은 15%(1만 7천명) 증가함. 행정·국방, 교육, 보건·복지 부문으로 구성된 공공부문의 고용은 동기간 행정·국방 고용감소에도 불구하고 5.1%(3만 8,200명) 증가함. 구체적으로 보면 교육의 고용은 11%(2만 4,600명) 증가하고 보건·복지의 고용은 6%(1만 8,500명) 증가함.
- 반면 1차산업(광업, 농임업, 어업) 고용은 15%(1,100명) 감소하였고 제조업 고용은 8%(2만 2,000명) 감소하였음. 그러나 제조업의 고용은 이분됨. 대도시의 임대료 등 생산비용증가 때문에 경쟁력이 약화된 의류, 운송장비, 조립금속, 고무제품에서 3만 1,800명 고용이 감소한 반면 대도시의 수요에 기반을 둔 음식료제조업, 출판·인쇄업은 고용이 증가하였음.

### 서울시에 대한 시사점

- 런던의 예를 고려할 때 서울시의 서비스업의 고용비중(2002년 79.1%)

은 향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런던의 예는 최근 수년간 전국평균보다 높은 서울시 실업률이 서울시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된 것임을 시사하고 있음. 1990년 초 이후 분당, 일산 등 신도시개발로 중상층, 전문직업 인구가 서울을 빠져나감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비중이 높아지고 이들의 실업이 서울의 실업률을 높였을 가능성이 있음. 실업률 감소를 위해서는 중상층, 전문직업군의 서울거주를 위한 환경개선과 저소득층의 취업능력확대를 위한 방안이 동시에 모색되어야 함.
- 런던의 예는 향후 유망한 산업군으로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와 여가산업을 예시하고 있음. 특히 컴퓨터와 관련된 정보산업은 중요한 고용원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공공부문은 런던시의 중요한 고용원이고 이 같은 현상을 뉴욕시에서도 발견할 수 있음. 고용은 대도시의 중요한 경제현안이므로 서울시는 고용안정화를 위하여 공공부문(보건·복지, 교육)의 고용확대를 정책의 방향으로 고려하여야 함. 그러나 행정부 및 공공부문의 지방이전은 안정적인 고용원인 서울의 공공부문축소와 이에 따른 공무원 및 공공부문 종사자(중상층, 전문직업 인구)의 유출을 초래할 것이며 이는 서울의 실업률에 영향을 미칠 것임.
- 런던시는 1990년 중반 이후 창의적인 산업으로 산업구조개편, 주민의 지식역량 강화 등 고용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그 결과 1990년 후반 이후 고용사정이 개선되었음. 런던시의 사례는 1990년 중반 이후 전국평균 보다 높은 서울시 실업률 문제에 대한 중장기 해결방안의 하나를 제시함.

윤형호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younh@sdi.re.kr